

주식 한달치 등락이 하루새... 일상업무 '나몰라' 이견 중독

신기루인가, 10혁명인가 코인 이야기

가상화폐 투자 해봤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24시간 풀 가동
상·하한선 없어 위험·수익성 커
주식과 다르게 소수점 구매 가능



2017년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비트코인 골드 차트.

무진하기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것을 위한 가상화폐는 분명 성공을 거둘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블록체인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상황인 만큼 저렴한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240만원인 삼성전자 주가가 1975년 상장 당시에는 1131원에 불과했던 것과 같은 이치다. 더군다나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시간 가동됐다. 상하한선이 없는 큰 변동률은 큰 위험성과 더불어 큰 수익성을 의미했다.

1~2년 후에도 살아남을 블록체인을 예측하며 투자해야 했다. 돌이켜 생각하면 데이터에 불과한 가상화폐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게임을 하며 게임머니 개념에 익숙해진 덕분이라는 생각도 든다.

12월 초, 국내 거래소 가운데 한 곳에 500만원을 입금했다. 며칠 더 시장을 지켜보다가 가장 먼저 투자한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였다. 10월경 비트코인에서 분리된 가상화폐라는 설명이었다. 비트

코인에 비해 채굴 난이도가 낮기에 전문 채굴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채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탈중앙화가 가능했다.

먼저 시작한 지인도 "중국인이 만든 코인이라 중국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구매를 권했다. 결국 코인 당 약 27만원을 주고 입금한 금액 전부를 사들였다. 주식은 1주 단위로 구매해야 하지만 코인은 소수점 아래 단위로도 구매할 수 있다.

◆"하루만에 100만원이 사라졌다"

지난달 9일 구매 직후 수시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 밤이 늦어 자고 일어나니 비트코인 골드 가격은 20만원 수준까지 내려갔다. 초 단위로 떨어지는 가격에 손절해야 하나 끊임없이 고민했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500만원이던 평가자산은 39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해야 할 업무가 쌓여 있었지만 자산이 줄어들다보니 일상적인 업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보유자산		KRW 환산 추정값		내 보유자산		KRW 환산 추정값	
보유KRW	총 보유자산	보유KRW	총 보유자산	보유KRW	총 보유자산	보유KRW	총 보유자산
2,073,696	5,562,238	1,555,272	6,075,495	1,555,272	6,075,495	1,555,272	6,075,495
총매수 2,945,822	평가손익 542,721	총매수 3,463,987	평가손익 1,056,237	총매수 3,463,987	평가손익 1,056,237	총매수 3,463,987	평가손익 1,056,237
총평가 3,488,542	수익률 18.42%	총평가 4,520,223	수익률 30.49%	총평가 4,520,223	수익률 30.49%	총평가 4,520,223	수익률 30.49%
엔엑스티 (NXT)	평가손익 524,239 수익률 23.28%	엔엑스티 (NXT)	평가손익 1,025,443 수익률 45.55%	엔엑스티 (NXT)	평가손익 1,025,443 수익률 45.55%	엔엑스티 (NXT)	평가손익 1,025,443 수익률 45.55%
1,214.07334887 NXT 보유수량	1,854 KRW 매수평균가	1,214.07334887 NXT 보유수량	1,854 KRW 매수평균가	1,214.07334887 NXT 보유수량	1,854 KRW 매수평균가	1,214.07334887 NXT 보유수량	1,854 KRW 매수평균가
2,775,653 KRW 평가금액	2,251,415 KRW 매수금액	3,276,856 KRW 평가금액	2,251,415 KRW 매수금액	3,276,856 KRW 평가금액	2,251,415 KRW 매수금액	3,276,856 KRW 평가금액	2,251,415 KRW 매수금액

지난해 12월 23일 밤과 24일 평가자산 기록. 기사를 염두에 두고 한 투자가 아니었고 긴장감도 컸기에 이전 기록을 미처 남기지 못했다. /오세성 기자

코스피에 투자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에 끔찍 앓으며 밤을 보냈다. 약간의 체념도 들었다. 지금 나에게 이 돈이 없어지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500만원은 많다면 많지만 차를 사거나 집을 살 수는 없는 돈이다. "그래, 비싼 명품 시계 하나 샀는데 술 먹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자."

다음날 역전이 시작됐다. 전날 20만원을 기록했던 비트코인 골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고 올라갔다. 줄었던 내 평가자산도 끊임없이 늘어났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던 그날 하루 만에 500만원을 회복했고 그 다음날 코인 가격이 30만원을 넘어서며 이익이 발생했다. 그 후로는 화를 내는 일이 없어졌고 동료의 장난도 웃음으로 넘겼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마냥 기분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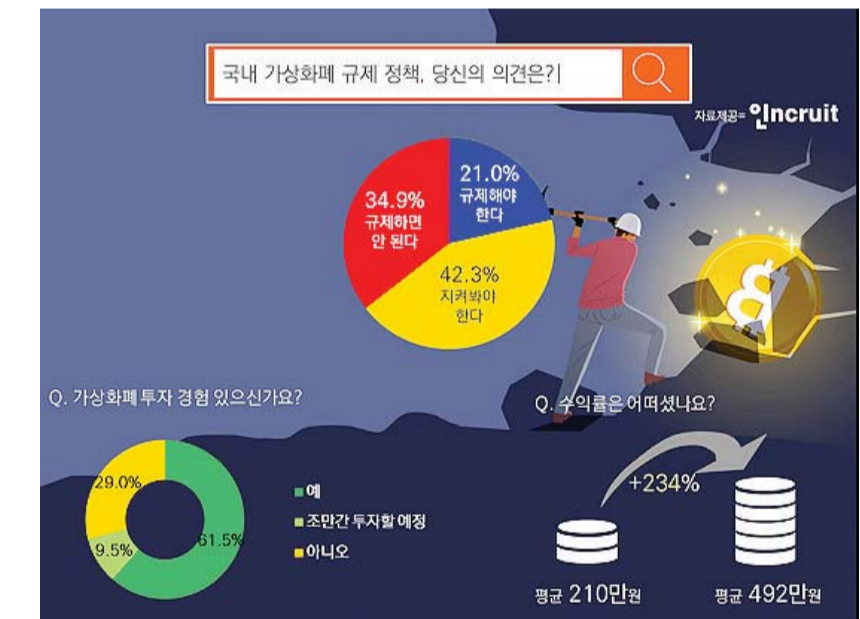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는 날이 있었지만 이미 이득이 발생했으니 큰 문제는 없었다. 이후 가격은 몇 만원씩 급등했고 되레 불안해졌다. 안절부절못하는 사이 코인 가격은 40만원을 넘었고 그 다음날도

자고 일어나니 50만원대로 올랐다. 단기간에 크게 올랐으니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더 이상 코인을 들고 있을 수 없었다.

그날 점심시간 비트코인 골드를 추천한 지인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가상화폐는 연말에 가격이 떨어진다더라"며 정리를 권해왔다. 점심시간을 끝내면서 코인을 전량 매도했을 때 개당 가격은 56만원에 달했다.

9월 500만원이던 평가자산은 11월 만에 1100만원이 됐다. 위험이 크지만 보상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끌어당길 정도로 더욱 컸다. 하지만 코인 구매 직후 가격이 떨어지며 느꼈던 긴장감과 공포 역시 생겼다. 원금과 약간의 이익금을 출금하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1월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왔을 때는 국내에서 운용하던 코인 상당수를 해외 거래소로 옮겼다. 이미 한 국가가 막는다고 막아질 흐름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성인남녀 35% "가상화폐 규제, 산업 흐름 역행"

투자 경험자 62%·수익률 234%
35% "점차 안정될 것" 중립 반응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3명 이상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은 61.5%, 평균수익률은 무려 234%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11~12월 양일간 자사회원 57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상화폐 규제정책에 대해 42.3%가 '두고 보면 점차 안정화할 것'이라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고, 34.9%는 '첨단 산업의 흐름을 역행하는 황당한 규제정책'이라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61.5%가 '그렇다'고 답했고 9.5%는 '향후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열기를 드러냈다. 투자 경험자들은 평균 210만 원을 투자해 492만원의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234%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주변에서도 가상화폐에 투자해 이윤을 남긴 사례를 목격했다고 했다. '주변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해 이윤을 남긴 지인의 사례를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74.8%가 '그렇다'고 밝혔다. 이윤을 남긴 대상은 '친구(38.8%)'가 가장 많았고, '직장 동료/상사(30.1%)', '학교동기/선배(9.6%)', '가족/친인척(8.4%)'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hys@

가상화폐 거래소 "보험 들기도 힘들네"

정체성 불분명에 안전·신뢰성 없어
피해 규제 뒷전... 저축은행 사태 우려
가입해도 보상 한도액 턱없이 부족

#. 이달 말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을 앞둔 A씨는 최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사의 사이버보험 상품 가입을 알아보았지만 결국 포기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조건도 무척이나 까다롭고 겨우 상품 가입을 신청했지만 절차가 지지부진하는 등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A씨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이 거부됐다"며 "금융기관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현재 거래소 상황으로선 앞으로도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피해자 구제책은 거래소의 보험 가입을 통한 보험금 지급이나 거래소 자체 보상이 유일하다. 다만 국내 보험사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보험에 가입했다더라도 피해 보상액(보험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피해금액을 보장하긴 역부족이다. 지난해 12월 해킹사고로 사상 초유의 파산 신고를 반복한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유빗은 파산 신고를 통해 해킹으로 사라진 코인의 규모만 당시 시세 기준 17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보험사의 상품 가입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30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가



해킹 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사무실에 지난달 20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업체 측의 설명이라도 듣겠다며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시 구제책이 없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또 한 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만으로 구청 등에 신고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이 적용돼 서버 다운이나 해킹 등 피해가 발생해도 예금자보호법(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등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결국 보험 가입과 자체 보상만으로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 중 보험을 가입한 곳은 손에 꼽힌다.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과 '코인원' 등 두 곳 뿐이다. 빗썸은 지난해 10월 현대해상 '뉴사이버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코인원은 이보다 앞서 같은해 8월 거래소 최초로 현대해상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보험사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인 '유빗'도 같은해 12월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이 외 나머지 20여 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보험 가입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영업하고 있다. 거래소 자체 보상만이 유일한 피해자 구제책이란 소리다.

무엇보다 보험 가입 거래소들의 보상 금액도 해킹 등에 따른 피해금액의 반도 안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규모는 현재 3조원에 육박하지만 '빗썸'과 '코인원'의 보상한도는 각각 60억원과 30억원 수준이다. '유빗'도 30억원의 보상한도액으로 최근 보험사고 접수를 완료했다.

국내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있던 저축은행도 부실로 어려웠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당국의 손길에도 벗어나 있어 가입 신청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